

중동 나흘째 화염...드론·미사일 공방속 “호르무즈 폐쇄”

이스라엘, 테헤란 국영방송국 폭격...레바논 헤즈볼라 본진도 타격
이란, 호르무즈 폐쇄 위협...사우디 주재 美대사관 드론 공격 받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이 3일(현지시간)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산유국으로까지 급격히 번지면서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란의 '대리세력'인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영 IRIB 방송 건물을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폭격은 군이 방송국이 밀집한 예반 지역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고 주민 대피를 권고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당국은 “조금 전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테러 정권의 통신 센터를 타격해 해체했다”면서 “이 센터에서 이뤄진 활동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행하고 지휘했다. 이 이란 방송국은 이스라엘 파괴와 핵무기 사용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IRIB 방송은 본부 근처에서 두차례 폭발

이 있었으나 방송국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도 타격했다.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한 바 있다.

공중 전력을 앞세워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 등을 파괴해 온 미국은 전날까지 이란 군함 11척을 파괴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약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은 이날 이른 오전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또다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텔아비브 상공에서는 방공망 요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들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이날 이



이란 테헤란 IRIB 방송 주변에서 발생한 폭발 모습. /AFP=연합뉴스

른 오전 외교단지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화염이 포착됐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두대의 드론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 방침을 밝혔다. 이란 언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10대의 드론을 이용해 쿠웨이트 내 미군 아리프잔 기

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고, 쿠웨이트는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 중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도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방공 시스템으로 격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저항세력도 이날 이른 오전부터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 이라크 및 인근 지역의 ‘적 기지’를 상대로 20건의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격은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 바레

인,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미군 시설뿐 아니라 공항, 호텔 등 민간 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군사공격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를 위협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이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한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번 충돌로 각국의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소 555명이 사망했으며,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1명, 미군 6명이 숨졌다.

레바논에서도 수십명이 사망했고, UAE 3명,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연합뉴스

쿠웨이트서 美 F-15 3대 추락...“방공망 오발”

첫 미군기 추락...탑승자 6명 무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쿠웨이트군의 오발로 추락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서 작전중이던 전투기 3대가 추락했으며 쿠웨이트 대공 방어망의 오발로 인한 사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은 모두 안전하게 비상탈출했으며 양호한 상태라고 사령부는 설명했다. 또 쿠웨이트 당국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웨이트 국방부는 성명에서 “오늘 아침 미군 전투기 여러대가 추락했으며 탑승자는 모두 무사하다”고 발표했다.

SNS에는 쿠웨이트 알자흐라 지역에서 미군 전투기가 추락하고 탑승자가 낙하산을 타고 비상탈출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 한 이후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쿠웨이트 알자흐라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소셜미디어 발췌.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곳곳의 미군 기지와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쿠웨이트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곳에 머물고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쿠웨이트는 이날 루마이티야와 살와 등 지역에서 드론 여러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 알하드마디 정유 시설에서는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떨어지면서 노동자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전쟁 여파 유럽 확산...그리스, 키프로스에 군함 파견

키프로스 “군사작전 참여 안해”

스페인, 미군 기지 사용 불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의 여파가 유럽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가 이란의 사헤드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아 그리스도 키프로스를 방어하겠다고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하면서다.

반면 스페인은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이란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다른 행보를 보였다.

폴리토는 2일(현지시간) 그리스도 키프로스에 벨라라급 호위함 ‘키몬’과 드론 방어시스템 ‘켄타우로스’를 장착한 호위함 등 2척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F-16 전투기 2대도 함께 배치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현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별 수 없는 관계다.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그리스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으로도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 키프로스가 공격받자 그리스도 우호국 방어를 명분으로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이란 전쟁에 발을 담그고 있다.

니코스 덴티아스 그리스 국방장관은 “키프로스 영토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대응해 그리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키프로스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로티리 기지가 공격받은 것은 1986년 리비아 무장세력의 공습 이후 처음이다. 공격은 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이 영국 군기지를 이란 공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이 키프로스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키프로스 남동부에 위치한 또 다른 영국 공군 기지인 데켈리아 인근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만 키프로스는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이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니코스 크리스토물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자폭 드론 공격 피해를 확인하면서도 “분명히 밝혀주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EU 회원국인 키프로스가 드론 공격의 표적은 아니었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이란 가운데 스페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규탄하며 자국 내 기지를 이란 공습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마르그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자국 내 기지를 활용한 작전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이란 공습은 물론 향후 지원작전에도 기지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스페인이 기지 사용을 불허하자 스페인 기지 내 전력을 독일로 이동 조치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자 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